朴-文, 두번째 '서울대회전' 세몰이

朴, 춤과 율동으로 젊은층 맹공략
文, 광화문 유세 안철수 깜짝 등장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합동 유세를 펼치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는 지난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간차 유세를 벌인지 일주일의 맞대결이다.

박 후보는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한 유세에 초점을 맞췄으며, 문 전 후보는 정정당당한 선거를 강조했다. 이는 양측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한 부동층 공략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코엑스몰 앞에서 '대한민국 으라차차'라는 이름으로 유세전을 펼쳤다. 이날 현장엔 김성주·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비대위원 등 당내·외 인사가 총동원됐다.

박 후보는 민생 대통령과 통합 대통령 이미지 심기에 주력하는 한편, 야권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차기 정부 출범에 앞서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하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은 하지 말고 선거 후에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야당의 지도자들과 민생 문제와 한반도 문제, 정치 혁신과 국민 통합을 의제로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유세를 마친 뒤에도 '아! 대한민국'과 '젊은 그대' 등의 노래에 맞춰 젊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율동을 하며 유세장 분위기를 띄우는 등 젊은층 집중 공략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중유세를 펼쳤다. 현장엔 주최 측 추산 5만명이 모였다. 이날 문 후보의 유세장은 행사 말미 안철수 전 후보가 등장하면서 열기가 달아올랐다. 애초 안 후보는 이날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다.

안 전 후보는 유세 연단에 올라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문재인"이라고 답하자, 안 전 후보는 "지금 대답대로 투표하실 겁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또 "네거티브를 끝까지 하지 않겠다.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 대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며 "안 전 후보와 저는 끝까지 이번 대선을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 정치를 반드시 함께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재인, 튼튼한 안보·남북평화 적임자"

■ 민주당 안보유세단장 백군기 의원 인터뷰

민주통합당 백군기(비례) 의원은 16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게 민주당 및 문재인 대선 후보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안보 유세단장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에 관한 고급정보도 확보하지 못한 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국가 안보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성 출신인 백 의원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당시에 주변국인 일본은 시민 대피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전에 경고도 없었고, 시민 대피 훈련도 없는 등 방공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안보관이 형편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남북 관계와 관련,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의 전제조건에 대해 해결방법을 협의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안보의 원칙을 준수하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투 트랙'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과학군 양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더불어 한미동맹 강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개혁이 필요한데, 집권하면 인수위원회부터 준비해서 대통령 재임기간 내에 국방개혁을 실현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이 민주당 안보정책이 취약하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예산은 매년 8.8%씩 상승했지만, 현 정부는 5.4%씩 밖에 오르지 않았고, 사병 월급 인상도 참여정부의 폭이 훨씬 컸다"며 "이는 새누리당이 국방 및 사병 복지에 대한 의지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5년 전 많은 호남출신 장성들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지만, MB정부에서 돌아온 것은 '호남 출신 장군 진급자 극소수'라는 피해를 당했다"며 "따라서 새누리당 지지선언은 결국 호남 출신 후배 장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이끌고 있는 안보 유세단은 민주당이 안보에 취약하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성됐으며,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 이봉원 전 육군사관학교장 등 예비역 장성 50여명과, 영관 장교 50여명, 부사관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5·18단체 "일부 회원 朴지지, 단체와는 무관"

일부 5·18 유공자들의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5·18 민주유공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등 3단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5·18 민주유공자단체는 특정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일부 유공자들의 지지 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없애려 했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역사를 삭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 광주시당 "불법 현수막 철거해야"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민주통합당이 유권자에 대한 투표 독려를 명분 삼아 교묘한 문구를 게재한 불법현수막을 설치했다"며 현수막 철거와 선관위, 검찰의 단속·처벌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정권교체!! 투표하면 새로운 정치가 열립니다' '대학생이 투표하면 이긴다. 정권교체로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는 등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있다"며 "특히 '정권교체!! 투표하면 새로운 정치가 열립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6·15, 10·4 공동연대 "문재인 후보 지지"

6·15, 10·4 공동연대(상임대표 박해전·고문 장두석)는 14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6·15, 10·4 선언을 완수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동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6·15, 10·4 선언을 거역한 이명박 정부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공들여 쌓은 남북관계는 파탄하고 최악의 전쟁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우리 민족의 살길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완수할 통일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4일 광주시 동구 중앙로 킴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보고싶다 민주야, 그립다 김근태' 추모 사진전에 참석한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전시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희호 여사 "DJ 유지는 정권교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지난 14일 "김 전 대통령의 유지는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이 여사는 이날 광주 동구 금남로 킴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김근태 사진전에 참석, "'대선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유신시대, 전두환 시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경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여사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3대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고 김 전 대통령이 말씀했다"며 "남편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생전 김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현 정부 아래에서의 3대 위기, 즉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를 말씀했다"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설 것을 호소했다"고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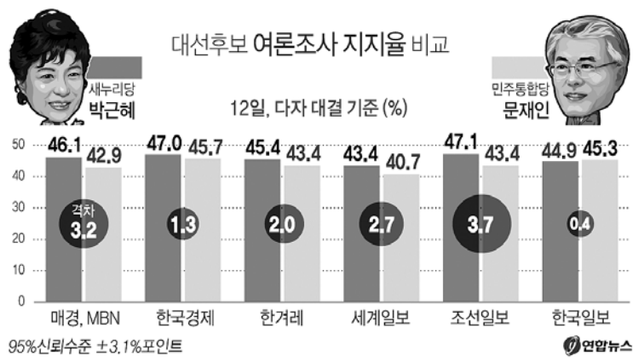
이어 "이번 선거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여사는 또 "김근태 상임고문이 '2012년에 반드시 이겨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며 "김 고문의 유지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라는 당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희호 여사가 동교동계 일부 인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한 데 대해 '변절자'라며 섭섭한 마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朴-文 오차범위내 접전…대혼전 양상

마지막 여론조사로 본 대선 전망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시한 이전인 지난 12일 실시돼 대선 'D-5일'인 지난 14일 일제히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0.1~3.8%포인트로 나타나 18대 대선 결과는 막판까지 예측이 불가능한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대선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문 후보가 박 후보를 턱 밑까지 추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박 후보의 백중우세 흐름 속에 문 후보가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발표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후보의 지지율은 47.1%, 문 후보는 43.4%로, 두 후보 간 격차는 3.7%포인트였다. 지난 8일 조사 때의 지지율 격차(4.8%포인트)가 다소 좁혀진 것이다.

매일경제와 MBN, 한길리서치의 조사에서 박 후보는 46.1%, 문 후보는 42.9%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대로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후보 우세로 나타났다. 지지율 45.3%를 기록한 문 후보가 박 후보(44.9%)를 0.4%포인트 차로 넘어선 것으로, 대선전 막이 오른 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지지율 우위를 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45.4%)가 문 후보(43.4%)를 2.0%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세계일보와 월드리서치의 조사에서는 박 후보의 우위 속 두 후보의 격차는 2.7%포인트였다.

이 같은 초박빙 판세 속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16일 후보직 사퇴하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막판 유세과정에서의 세(勢)대결, SNS 대전, 마지막 TV토론, 나아가 투표율 등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또 두 후보의 지지율이 '블랙아웃'된 상황에서 가능성이 큰 후보에 표가 몰리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날지, 약세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언더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소액/공동투자 가능
▶1인 1물건 추천
▶회비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T.062-52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추천 물건 상담전화 김 종 원 이사 010-8227-7759
☞ 수기동 [근린시설 4층] ☜ 대652㎡,건2387㎡ 감정가 14억 최저가 4억5천
☞ 주유소 [여수 율촌] ☜ 대2373㎡,건231㎡ 감정가 8억5천 최저가 3억8천
☞ 나주남평 [주유소] ☜ 대4428㎡,건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6억8천
☞ 신안압해 [횟집,판매시설] ☜ 대4706㎡,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8억
☞ 전북김제 [물류센터] ☜ 대8076m2,건5004m2 감정가 25억 최저가 6억5천
☞ 전주시덕진구[유흥주점] ☜ 대665㎡,건988㎡ 감정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
☞ 화순이양 [공장] ☜ 대6536㎡,건2056㎡ 감정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
☞ 원룸[계림동] ☜ 대333㎡,건803㎡ 감정가 6억7천 최저가 3억7천
☞ 충장로 [근린주택] ☜ 대215㎡,건306㎡ 감정가 4억6천 최저가 2억
☞ 목포대양동 [수양관] ☜ 대1786㎡,건408㎡ 감정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 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25억5천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 3289평 ▷건물 1601평 ▷감정가 52억4천 ▷매매가 36억7천
☞ 화정동 [청기와예식장] ☜ ▷대지 330평 ▷건물 1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목포 상동[숙박시설] 대170평 건544평 감정가18억6천 최저가13억1천
여수학동[근린상가] 대136평 건513평 감정가15억 최저가 10억5천
무안 망운[숙박시설] 대257평 건346평 감정가11억 최저가6억2천
구례 용방[공장] 대1295평 건363평 감정가13억 최저가7억4천
화순 도곡[무인텔] 대1904m2,2628m2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목포 상동[근린주택] 대1697 건204평 감정가88억 최저가62억
나주중앙동[근린상가] 대330평 건480평 감정가23억1천 최저가16억2천
서구 치평동[숙박시설] 대213평 건617평 감정가32억 최저가22억4천
목포 상동[근린주택] 대1697 건204평 감정가88억 최저가62억
북구 용전동[공장] 대700평 건423평 감정가22억7천 최저가14억6천
* 함께할 운영자 및 연회원을 모집합니다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중순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십니다.
* 찬모(여)2명,설겆이(여)1명,홀서빙6명,매니저(남,여)2명,매점(여)1명,경리(여)1명,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퇴직금,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풍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